

오랜만에 신작 내놓은 감독들 감독도, 관객도 원치 않았던 '휴식'의 뒷모습

최근 박찬옥 감독이 <질투는 나의 힘> 이후 7년 만에 신작 <파주>를 발표했다. 데뷔작에 쏟아진 찬사를 감안하면 너무 늦은 차기작 소식이다. 단지 그녀뿐만이 아니다. <지구를 지켜라>의 장준환 감독도 6년째 차기작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 기라성 같은 거장들마저 신작 소식이 뜸하다. 왜 이들은 이토록 오래 실 수밖에 없는 것일까. 그들이 당면한 문제는 한국영화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시점이다.



올림픽 감독 혹은 월드컵 감독이라는 호칭이 있다. 실전 스포츠에서라면 칭찬이 분명한 멘트지만, 영화감독들에게 이 말은 저주 혹은 독설에 가깝다. 4년에 한 편씩 영화를 만든다는 것은 4년에 한 번만 월급을 받는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기 때문이다. 1년에 한 편씩 영화를 생산하면 고액 연봉자에 속하지만 4년에 한 편 영화를 만든다면? 1년 2,000만 원짜리 연봉자도 어렵다. 비단 연봉 때문만은 아니다. 감독들은 창작욕이 남다른 사람들이다. 하고 싶은 이야기, 보여주고 싶은 이야기들이 늘 흘러넘친다. 소설가나 시인이라면 그냥 골방에 앉아 주구장창 쓰면 되지만, 감독은 다르다. 원고지에 쓰면 끝나는 예술이 아니라, 자본을 모아 현장을 꾸리고 극장에 걸릴 만한 작품을 내놓아야 완성되는 예술이다. 술자리에서 감독들은 푸념한다. "감독은 어찌 보면 일용직 노동자나 다름없다. 늘 백수의 심정으로 살다가 겨우 '직업'을 얻어도 이 건 어디까지나 몇 개월 혹은 1년짜리 계약직이다. 작품 끝나면 또 다시 백수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어떤 감독은 올림픽 감독이라도 되면 다행이라고 자조 섞인 이야기를 쏟아낸다. 영화 한 편 만들고 5, 6년째, 혹은 십여 년째 쉬고 있는 감독들의 이야기다. <파송송 계란탁>(2005) 이후 오랫동안 신작 소식을 전하지 못한 오상훈 감독은 휴식 기간이 긴 감독의 삶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작품이 안 나와서

그렇지 우린 늘 영화를 준비한다. TV에 모습을 잘 비추지 않지만 꾸준히 활동하는 연예인들과 비슷한 삶이다." 생산성 뛰어나기로 대한민국 최고를 자랑하는 김기덕 감독조차 최근까지 인터뷰 말미에 "다음 작품을 시작할 수 있을 정도만 성과가 나면 좋겠다"고 이야기할 정도였다. 차기작의 성공이 아니라 차기작의 가능성에 대한 감독들의 부담감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올림픽 감독을 능가하는 감독들

최근 신작을 발표한 박찬옥 감독은 힘겹게 차기작을 내놓은 대표적인 감독에 속한다. <질투는 나의 힘>(2002)에서 <파주>(2009)까지 무려 7년의 시간이 걸렸다. 아무리 데뷔작이 흥행에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질투는 나의 힘>에 쏟아진 평단의



찬사를 생각하면 이는 지나치게 늦은 차기작 소식이다. 꼭 해야 할 말도 세 번쯤 걸러 말하는 박찬옥 감독은 그동안의 마음고생을 구구절절 털어놓지 않는다. 그녀는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고 짧게 에둘러 말할 뿐이다. 그러나 그 '어쩌다 보니' 안에는 수많은 말들이 숨어 있을 것이다.

원래 <파주>의 초안이 나온 것은 2003년 무렵. <질투는 나의 힘>을 들고 로테르담국제영화제에 참석한 박찬옥 감독은 <파주>의 원안이라 할 만한 스토리를 그때 처음 머릿속에 떠올렸다. 마침 그녀가 살고 있는 동네는 일산이었고 단편작업 때문에 파주 촬영 스튜디오에 자주 가게 되면서 이야기가 파주라는 도시의 이미지를 먹고 쑥쑥 자라났다. 파국의 멜로 안에 파주의 안개가 아릿하게 끼어드는 형국. 박찬옥 감독은 2005년 부산국제영화제 PPP(부산 프로모션 플랜)를 통해 처음 <파주> 트리트먼트를 공개했고, 제작을 위한 기본 엔진을 달았다. 하지만 그 사이 제작사가 교체되면서 어쩔 수 없이 크랭크인이 지연됐다. 시나리오를 만지며 기다리기를 몇 년. 그 사이 7년의 시간이 가뭇없이 흘러버렸다.

"그래도 그녀는 기어코 영화를 만들지 않았나? 감독 중엔 영화 한 편 만들고 오래 차기작을 내지 못한 사람이 부지기수다." 한 영화 평론가의 반론이다. 이진 뒨 <노팅힐>의 '누가 더 가슴 아픈 사연을 가지고 있나' 게임이

따로 없다. 생각해보면 그녀의 사연은 실제로 조금 나은 편에 속한다. 전작에서 흥행에 성공했거나 평단의 호평을 얻어낸 감독들 중 이상하리만치 오래 신작 소식을 전하지 못한 감독들의 이름을 호명해보자. 대표적인 인물이 <지구를 지켜라>(2003)의 장준환 감독이다. <지구를 지켜라>는 비록 흥행에선 쓴맛을 보았지만, 개봉 당시 수많은 거장들의 영화를 제치고 '올해 최고의 영화', '한국영화의 지평을 넓혀준 걸작'이라는 호평을 얻어낸 작품이다. 한국영화사에서 이렇게 일방적인 극찬을 받은 영화도 따지고 보면 매우 드물다. 그런데 장준환 감독은 이후 오랫동안 현장에 나서지 못했다. 이는 차기작을 준비했던 싸이더스의 흥망성쇠와 연관이 깊다. 장준환 감독이 <지구를 지켜라>를 내놓은 후 차승재 대표가 이끌었던 싸이더스는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었다. 상업적인 재미를 중요시하는 좋은영화와 몸을 합쳤고, 이동통신사 KT를 대주주로 맞아들였다.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작가' 장준환은 허공에 등둥 떠있는 판타지가 아니라 현실에 진득하니 발을 붙이고 있는 이야기를 준비해야 했다. 최동훈 감독의 히트작 <타짜>의 두 번째 이야기인 <타짜리벤저> 연출자로 지목되어 작품을 준비하길 몇 해. 하지만 장준환 감독으로 확정되어 있던 이 영화의 연출자는 우여곡절 끝에 현재 미정으로 남겨진 상황이다.

올림픽 감독이라도 행복해

최근 신작을 발표한 <이태원 살인사건>의 홍기선 감독 역시 작품 주기가 긴 감독으로 꼽힌다. 서울대 영화동아리 '알라성' 출신인 홍기선 감독은 1992년 <가슴에 돋는 칼로 슬픔을 자르고>로 '한국의 켈 로치'라 불리며 의미심장하게 데뷔했으나, 두 번째 영화 <선택>(2003)을 발표하기까지 무려 10여 년의 세월을 신작만 '준비하며' 보냈다. 세 번째 작품인 <이태원 살인사건> 역시 6년 만에 어렵게 결실을 맺은 작품이다. 이밖에 곧 개봉을 앞둔 <꼭 껴안고 눈물 핑>의 김동원 감독은 2002년 <해적, 디스코왕 되다> 이후 7년 만에 '눈물겨운' 신작을 들고 돌아왔다. <해적, 디스코왕 되다>가 관객과 평단의 안정적인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차기작 소식이 이렇게 늦어진 이유는 무엇일까. 어렵게 차기작을 만든 감독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한다. "준비하던 작품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었어지게 되면 3, 4년이 훌쩍 지나간다. 그때부터 새롭게 한 작품을 준비하고 나면 또 5, 6년이 지나간다. 그러다 보면 현장의 감을 잃어버리게 될 때가 많다. 워낙 업계 분위기가 빨리빨리 변하는 한국



김경형 감독



이정향 감독



(해적, 디스코왕 되다)

사회다 보니, 오랜만에 현장을 지휘하면 모든 면에서 어리둥절한 것이 사실이다." 띄엄띄엄이긴 해도 꾸준히 신작을 내놓는 감독들은 그래도 행복하다. <와니와 준하>와 <분홍신> <불꽃처럼 나비처럼>에 이르기까지 정확히 4년에 한 번씩 신작을 발표한 김용균 감독, 2001년 <소름>으로 데뷔해 <청연>(2005), <나는 행복합니다>(2008)까지 4.5년에 한 번씩 꾸준히 작품을 발표하는 윤종찬 감독, 2002년 <아이언 팜>으로 데뷔한 후 <달마야, 서울가자>(2004)에 이어 오랜만에 <아세아 브라더스>라는 신작을 준비 중인 육상효 감독 등이 잇을 만하면 신작을 들고 '나타나는' 감독들. 이밖에 <동갑내기 과외하기>(2003)로 흥행 대박을 터트렸으나 <라이어>(2004) 이후 오랫동안 세 번째 작품을 발표하지 못하고 있는 김경형 감독과 <고양이를 부탁해>(2001)와 <태풍태양>(2005)으로 호평을 받은 후 차기작 소식이 뜸한 정재은 감독 등이 감독들이 으레 겪는 세 번째 고비를 힘겹게 통과하고 있는 중이다.

당신은 어디 있나요?

어떤 감독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조차 모연한 경우도 있다. <집으로...>로 흥행 대박을 터트린 이정향 감독이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녀는 <미술관 옆 동물원>으로 심은하, 이성재를 최고의 스타 자리에 올려놓았고, <집으로...>로 의외의 대박을 터트려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집으로...> 이후 이정향 감독

신작 프로젝트를 빨리 시작하지 못한 감독들의 마음은 바짝바짝 타들어가기 마련이다. 흥행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이는 감독들이 창의적인 모험을 하기 어려운 구조를 만들어낸다. 과연 이런 현상을 마냥 놔 놓고 바라봐도 괜찮을까.

은 오랫동안 신작 소식을 알리지 못한 채 두문불출하고 있다. 이것은 시골 냄새 물씬한 영화를 만든 감독들의 공통된 운명일까. <내 마음의 풍금>(1998)으로 전도연의 새로운 모습을 건져 올린 이영재 감독 역시 10여 년간 신작을 발표하지 못한 채 두문불출하고 있다. 다행히 그는 최근 <여름이 준 선물>이라는 제목의 신작을 완성한 상황. 하지만 아직 개봉 일정을 잡지 못한 채 마지막 산고를 치르고 있다.

투자자를 매혹시킬 수 있는 아이템이 아니라면, 거장 감독들도 신작을 향한 발걸음이 무거워지는 건 마찬가지 현실이다. <후수선>(2001)과 <길>(2004) 사이 3년여의 공백기를 가진 배창호 감독은 연출력이 공인된 중견 감독임에도 불구하고 차기작 연출에 어려움을 겪다가 어렵게 신작을 완성했으며, 해외에서도 널리 알려진 임택, 이명세 감독은 현재 차기작 프로젝트를 한걸음씩 전진시키고 있다. 그들은 말한다. "우리도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더 어렵다."

이처럼 감독들의 작품 주기가 점점 길어지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어떤 예술보다 많은 자본이 투입되는 영화라는 장르의 속성상, 흥행의 승패를 결정짓는 '감독'에 대해 더 엄한 잣대를 적용하는 게 당연지사. 자본이 말라붙을수록 빈익빈 부익부는 극심해진다. 흥행이나 작품성이 보장된 감독에게는 돈이 물리지만, 조금이라도 위험부담이 있는 감독에게는 돈이 돌아가지 않는다. <여고괴담 3-여우계단>(2003) 이후 오랜만에 <요가학원>(2009)으로 돌아온 윤재연 감독은 "그 사이 어떻게 지냈느냐"는 질문에 "다른 사람의 시나리오 작업에 참여하거나 영화제 심사위원, 심포지엄 참석 등으로 생계를 이어갔다"고 수줍게 고백했다. "그 사이에도 신작에 대한 생각은 늘 머릿속에 꽂 차 있었다"고 털어놓았다.

신작 프로젝트를 빨리 시작하지 못한 감독들의 마음은 이처럼 바짝바짝 타들어가기 마련이다. 흥행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그리고 이는 감독들이 창의적인 모험을 하기 어려운 구조를 만들어낸다. 과연 이런 현상을 마냥 놔 놓고 바라봐도 괜찮을까. 감독들이 영화 현장보다 특강이나 영화제 심사위원으로 더 활발히 활동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가뭄에 콩 나듯 주어지는 디지털 단편영화, 인권영화 연출 기회에 감격해하는 현실은 또 어떤가. 할리우드처럼 거대 자본으로 승부할 수 없는 현실에서 창의성과 도전 정신마저 사라진다면 우리 영화계가 사막처럼 황폐화되는 건 시간 문제다.

황희연 기자